

선교, 교육 약정 / 산상 변모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TRANSFIGURATION SUNDAY

주후 2022년 2월 27일 오전 10시

인도: 김강석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56 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새 51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4 번 선교 주일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창세기(Genesis) 24:10-15</b>	임필재 집사
찬 양 Anthem	“There Is A Fountain”	찬양대
설 교 Sermon	<b>“이름 없는 종” (Unnamed Servant)</b>	정재홍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27 장 “내가 매일 기쁘게” (새 19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정재홍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삶의 염려와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무기력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합당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26:41, 요 17:3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한글개역 **창24:12**)

“Then he prayed, O LORD, God of my master Abraham, give me success today, and show kindness to my master Abraham.” (NIV Genesis **24:1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27 (주일)	2/28 (월)	3/1 (화)	3/2 (수)	3/3 (목)	3/4 (금)	3/5 (토)
출	출10	출11	출12	출13	출14	출15	출16
눅	눅13	눅14	눅15	눅16	눅17	눅18	눅19
욘	욘28	욘29	욘30	욘31	욘32	욘33	욘34
고전	고전14	고전15	고전16	고후1	고후2	고후3	고후4

재/의/수/요 특/별/예/배

토/요/ 새/벽/기/도/회

재의 수요일 특별예배 (3/2 오후7:30)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욘21-2,12-17)
토요일 새벽기도회 (3/5 오전6:30)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시71:17-24)

지난 주일(2/20) 말씀 (조문길 목사, PCUSA 총회 한인목회실)

“좋은 믿음”(마태복음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되는 ‘온유함은 다분히 얌전하거나 조용하거나 유하다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자”를 온유한 자로 해석했습니다. 즉,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는 자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유한 자이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체험하고, 확신하며,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즉, “생의 몫(분복)을 충만하게 받는다”고 약속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1)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습관과, 2)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진지한 영적 훈련을 통해, 3)분별력이 생겨야 하고, 4)그릇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삼하11-12장),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최대한의 시간과 영적인 공간을 허락하셨고, 온전한 회개가 있을 후,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 그릇된 삶의 궤적을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자문해보며, 하나님의 길들임에 더욱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